

19세기의 사상과 문화

[자연 과학의 발달(『비상 교과서』)]

생물학	다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『종의 기원』 발표(1859) • 적자생존, 자연 도태의 개념으로 생물의 진화 과정 설명 • <u>사회 진화론에 영향</u>
	멘델	• 완두콩 실험, 유전 법칙 발표, 유전학의 기초 확립
세균학	파스퇴르	• 전염병의 원인이 세균 때문임을 규명 → 질병의 예방·치료 기여
물리학	마이어·헬름홀츠	•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발견
	패러데이	• 전자기 유도 법칙 발견
화학	뢴트겐	• X선 발견
	퀴리 부처	• 라듐 발견
	헤르츠	• 전자기파의 존재 입증
	멘델레예프	• 원소 주기율표 작성

생존 경쟁은 …… 전체 동물과 식물의 왕국에 적용된 맬서스의 교리이다. 각 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들이 태어난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존 경쟁이 빈번히 반복되기 때문에, 만약 어떤 존재가 복합적이고 때로는 달라지는 생활 조건에서,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약간이라도 유리하게 바뀐다면, 생존 기회가 더 많아지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선택된다. 강력한 유전 원칙에 따라서 선택된 변종은 자신의 새롭고 변모된 형태를 유전시키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. - 『종의 기원』(1859)

[기술의 발달(『비상 교과서』)]

노벨	• 다이내마이트 발명
에디슨	• 전등, 축음기(1877), 활동사진 등 발명
패러데이	• 발전기 발명

[철학의 발달(『비상 교과서』)]

관념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8세기 후반 ~ 19세기 전반 독일에서 전개 • 칸트(1724 ~ 1804) 시작 • 피히테(1762 ~ 1814), 헤겔(1770 ~ 1831, 변증법)의 완성 	
실증주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콩트(1798 ~ 1857) : 인간의 지식과 실천을 과학적 실증 방법으로 규명 :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 개척 	
공리주의 (功利)	벤담 (1748 ~ 183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양적 공리주의, 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’ : 개인의 쾌락과 집단 전체의 쾌락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
	밀 (1806 ~ 187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본주의가 가진 부정적인 면 지적 • 인간적, 사회적 차원을 고려한 질적 공리주의 제시 • 벤담의 사상을 계승하여 영국 자유주의 개혁 사상의 이론적 토대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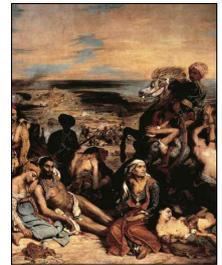
19세기의 사상과 문화

[역사학과 경제학(『비상 교과서』)]

역사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족주의 + 낭만주의 ✓ 민족의 과거와 전통에 관심 → 역사학 발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랑케(1795 ~ 1886) ✓ 엄격한 사료 비판,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강조 ✓ 근대 역사학 확립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리카도(1772 ~ 1823), 맬서스(1766 ~ 1834) 등 고전 경제학 완성



〈1808년 5월 3일〉



〈카오스 섬의 학살〉

[문예 사조(『비상 · 미래엔 교과서』)]

01. 낭만주의(19세기 전반)
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사상과 형식에 치우친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• 개인의 감정과 상상력 존중 •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관심 	
	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학: 괴테, 하이네, 바이런, 워즈워드, 푸시킨 회화: 고야(1808년 5월 3일), 들라크루아(카오스 섬의 학살) 음악: 슈베르트, 슈만, 쇼팽

02. 사실주의와 자연주의(19세기 후반)
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 • 과학의 발달과 실증주의의 영향 •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 →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반영 	
	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학: 발자크, 에밀 졸라, 찰스 디킨스, 도스토옙스키, 톨스토이 회화: 사실주의(쿠르베, 밀레) 빛과 색채 중시의 인상파(마네, 모네, 르누아르) 음악: 드보르작, 시벨리우스, 브람스, 드뷔시, 베르디, 차이콥스키

그곳은 붉은 벽돌, 아니 만약 연기와 재가 가리지 않았더라면 붉은색이었을 벽돌의 도시였다. …… 그곳은 기계와 높은 굴뚝의 도시였다. 그 굴뚝으로부터 끝없는 뱀 같은 연기가 영원히 계속해서 결코 그 파리를 풀지 않을 것처럼 뿜어져 나왔다. 그 도시에는 검은색 운하가 있고, 강은 염료 때문에 자주 빛으로 변하였으며, 더러운 냄새를 풍겼다. 그리고 도시에 가득 찬 건물 더미의 창문은 온종일 덜컹거리고 떨어 댔다.

- 디킨스, 『어려운 시절』(1854)



〈쿠르베, 돌 깨는 사람들〉



구분	내용
르네상스	① 인간과 자연의 재발견(<u>인문주의</u>) ② 중세 신(神) 중심의 세계관 극복 → 인간 중심의 <u>고대 그리스·로마 문예 부흥 운동</u> ③ 북부 이탈리아 지역(14세기) : 지중해 무역 발달, 사실적·세속적 성향, 조각·회화 등의 문예 중심, 심미주의(審美主義) : <u>페트라르카</u> , <u>마키아벨리</u> (『군주론』), <u>보카치오</u> , 레오나르도 다 빈치, 미켈란젤로, 라파엘로 ④ 알프스 이북 지역(16세기) : 대서양 무역 발달, <u>크리스트교적 인문주의</u> , <u>종교·사회 비판적</u> , 사회 개혁 추구 : <u>에라스무스</u> (『우신예찬』), <u>토머스 모어</u> (『유토피아』), 세르반테스(『돈키호테』) ⑤ 과학·기술의 발달 : 활판인쇄술(구텐베르크, 1455), 지동설(<u>코페르니쿠스</u> , 『천체의 회전에 관하여』, 1543)
종교 개혁	① <u>루터의 종교 개혁(1517)</u> : 비텐베르크, <u>95개조의 반박문</u> (⇨ 면벌부 발행), <u>성서 지상주의</u> , 보름스 국회(1521) : 슈말칼덴 전쟁(1546 ~), <u>아우크스부르크 회의</u> (제후·도시 지도자의 종교 선택권 인정, 1555) ② <u>칼뱅의 종교 개혁(1536)</u> : 제네바, 『 <u>크리스트교 강요</u> 』(<u>예정설·직업소명설</u> , 1536), 상공 시민들의 지지 ③ <u>영국의 종교 개혁</u> : 정치·경제적 동기, <u>수장법(1534)</u> , <u>통일법(영국 국교회 확립, 1559)</u> ④ 가톨릭 내부의 개혁 : 예수회 설립(1534), <u>트리엔트 공의회(1545 ~ 1563)</u> ⑤ <u>종교 전쟁</u> : 위그노 전쟁(<u>낭트 칙령, 1598</u>), 네덜란드 독립 전쟁, 30년 전쟁(<u>베스트팔렌조약, 1648</u>)
절대 왕정	① <u>왕권신수설</u> , <u>중상주의</u> , 관료제·상비군, <u>시민의 지원</u> , <u>펠리페 2세</u> , <u>엘리자베스 1세</u> , <u>루이 14세</u> ② 동유럽 절대 왕정 : <u>계몽 절대 군주</u> , 농노제 강화, <u>프리드리히 II</u> , <u>마리아 테레지아</u> , <u>예카테리나 II</u>
신항로 개척	① 오스만 제국의 동방 교역 차단,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 주도(<u>포르투갈</u> , <u>에스파냐</u>) ② 바르톨로메우디아스(희망봉), <u>콜럼버스(서인도 제도)</u> , <u>바스쿠 다가마(인도 항로)</u> , <u>마젤란(세계 일주)</u> ③ 무역 중심지 확대(<u>지중해·대서양</u>), 은 중심의 세계적 교역망, <u>노예무역</u> , 가격 혁명 → 상업 혁명
산업 혁명	① <u>영국 시작(1768)</u> : 인도산 면직물 수요 증가, 제2차 인클로저 운동,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 안정 ② <u>기술 혁명</u> (방직기·방직기) ⇨ <u>동력 혁명</u> (제임스 와트, 증기 기관, 1782) ⇨ <u>교통·통신 혁명</u> ③ <u>산업화</u> (기계 공업), <u>도시화</u> ,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분화, 빈부격차 심화, 부녀자·아동 노동 문제 ④ <u>사회주의</u> : 공상적 사회주의(오언, 뉴 라나크), 과학적 사회주의(맑스·엔겔스, 『공산당 선언』)
시민 혁명	① <u>영국</u> : 권리청원(1628) ⇨ <u>청교도 혁명(1642 ~ 1649)</u> ⇨ <u>명예혁명(1688)</u> ⇨ 권리장전(1689) ② <u>미국</u> : <u>인지세(1765)</u> ·차(茶)세 ⇨ <u>보스턴 차 사건(1773)</u> ⇨ 렉싱턴 전투 ⇨ <u>독립 선언서(1776)</u> ⇨ 제2차 필라델피아 대륙 회의(1775 ~ 81) ⇨ <u>요크타운 전투(1781)</u> ⇨ <u>파리 조약(1783)</u> ③ <u>프랑스</u> : 삼부회 소집(1789) ⇨ <u>국민의회</u> ⇨ 바스티유 감옥 습격 ⇨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⇨ 베르사유 대행진 ⇨ <u>입법의회(1791)</u> ⇨ 혁명전쟁 ⇨ <u>국민공회(1792)</u> ⇨ 루이 16세 처형(1793) ⇨ 공포 정치(<u>로베스피에르</u>) ⇨ 테르미도르의 반동(1794) ⇨ <u>총재 정부(1795)</u>
국민 국가의 발전	① 나폴레옹 시대 : 통령 정부(1799 ~ 1804), <u>제1 제정</u> , <u>대륙봉쇄령(1806)</u> , <u>러시아 원정(1812)</u> ② 빈회의와 빈체제(1815 ~) : 메테르니히, 신성 동맹과 4국 동맹, 자유주의·민족주의 운동 탄압 ③ <u>프랑스의 7월(1830)·2월(1848) 혁명</u> , <u>제2 제정(1852 ~ 70)</u> , 파리 코뮌(1871), 제3 공화정(1871) ④ 영국 : <u>제1차 선거법 개정(1832)</u> , <u>차티스트 운동(1838)</u> , <u>심사법(1828)</u> · <u>곡물법(1846)</u> · <u>항해법 폐지</u> ⑤ <u>이탈리아 왕국의 성립(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, 1861 ~)</u> : 사르데냐 왕국(1720 ~), <u>재상 카보우르</u> , <u>프롱비에르 협정(1858)</u> , <u>오스트리아와 전쟁</u> , <u>가리발디</u> ⑥ <u>독일 왕국의 출범(국왕 빌헬름 1세, 1871 ~)</u> : 프로이센 주도, <u>관세 동맹(1834)</u> , <u>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(1848 ~ 1849)</u> , <u>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</u> , <u>오스트리아와 전쟁(1866)</u> → 북독일 연방, 프로이센과 전쟁(1870 ~ 1871) → 남독일 연방 ⑦ 미국의 남북 전쟁(1861 ~ 1865),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(~ 1881)의 <u>농노 해방령(1861)</u>